



기술과 품질로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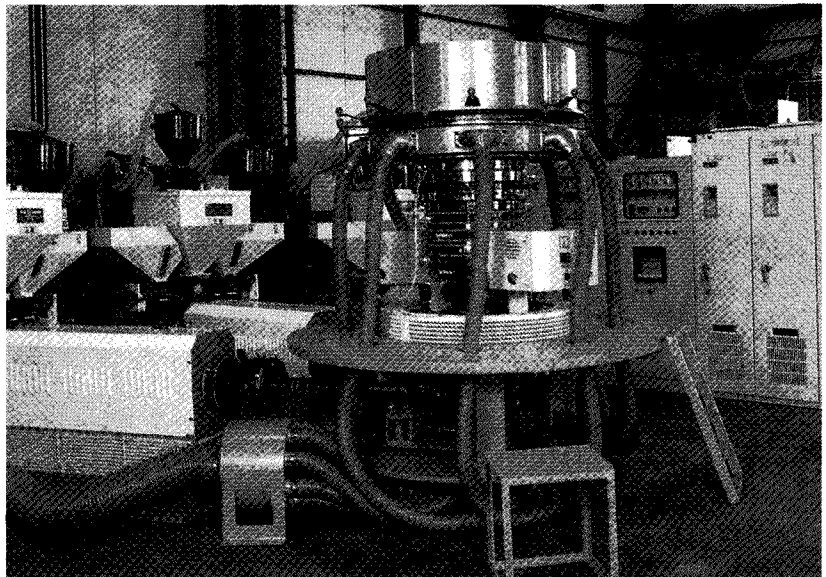
고객과의 신뢰 구축 최우선

압출성형기 전문 제작업체인 (주)삼광기계가 세계 도약의 기치를 내걸고 기술과 품질에서 앞선 제품생산에 나섰다.

세계 기술창달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신제품 생산으로 필름기 생산기업의 위치를 확고하게 구축한 삼광기계는 우수한 성능과 경제성으로 내수시장 및 세계시장에서 기업의 네임밸류를 극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오직 고객이 만족하는 기계를 제작, 기술과 품

질로 인정받겠다는 신념이 삼광기계를 성장, 발전시켰으며 기업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삼광기계는 1980년 영등포에서 신광기계제작소로 출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19년동안 탄탄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설립 3년쯤 나이지리아 정부 초청 기계전시회에 출품, 우수한 기술력을 선보였고 1987년에는 (주)신광기공으로 법인전환, 1989년 남동공단으로 본사와 공장을 신축 이전하는 성장을 거듭했



▶ 삼광기계에서 생산하는 필름가공 기계

다. 이 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서 삼광기계는 성장을 지속하며 1990년 칠레 FISA박람회 출품, 1991년 한국기계전출품, 1994년 IPF출품 등 해외 유수의 전시회 참가를 통해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성장 발판을 확고하게 다져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0여년의 성장가도에 제동이 걸려 좌절의 아픔을 감수해야 했다. 삼광기계는 고통에 빠져있던 시간을 털고 일어나 1995년 2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 재기에 나섰다.

삼광기계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각오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신개념의 압출성형기 개발에 착수했다.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추구, 보다 우수한 제품의 압출성형기를 개발했다.

특히 단층필름기보다 다층필름기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이 분야의 시장 개척에 탁월한 기술력을 확보했다. 신광기공 시절부터 기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싱크 탱크로써 설계 및 제작을 총괄해 온 기술팀은 '기술과 품질이 기업을 부강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최고의 원동력이다'라는 철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삼광기계의 사장은 "당시 땀으로 쌓아 올린 기업이 무너져 내리자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10여년의 성상이 물거품이 되었지요. 특히 고객과의 신뢰가 허물어진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신뢰 재구축에 역점을 두었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갔습니다"라며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지금의 삼광기계는 기초부터가 남다르다. 기술

을 배경으로 탄탄한 인적구성을 갖고 있다. 경영총괄 사장, 내부관리 전무이사, 설계·제작의 상무이사를 축으로 경영포지션이 구축돼 있고 경험과 노련미를 갖춘 직원들이 회사의 내임밸류를 높이고 있다. 삼광기계의 삼광(三光)은 3개의 빛이 온누리를 환하게 비춤으로써 압출성형기의 새로운 리더로 나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내·외부를 튼튼하게 떠받치고 있는 경영진의 효율성을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삼광기계의 이같은 내부 전문성은 기계제작의 전문성으로 이어져 압출성형기 설계·제작의 독특한 아이템을 창출하는 리딩뱅크가 되고 있다.

삼광기계는 IMF한파가 불어닥친 98년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도 내실추적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삼광기계의 사장은 "IMF 시절은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새로운 제품 개발에 도전,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어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삼광기계는 기술개발의 역작인 '통기성필름 및 콤포지션 시트라인(Breathable Film & Composition Sheet Line)을 개발하여 폴세트를 이탈리아에 수출하는 기업을 토했다.

이 기계는 T다이 1축연신필름 및 시트기로써 생산 폭 2m의 제품을 1일 10톤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 기종은 상하 작동방식의 롤러시스템을 채택했고 원터치로 각 롤러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롤러 내에 발열장치를 내장,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또 카본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작동하는 기



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중앙집중식 컨트롤러를 채택, 편리성 및 조작의 간편성을 추구했고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세트마다 조작장치를 부착하여 적은 인원으로 기계 관리 및 생산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삼광기계의 사장은 “이탈리아 수출기종은 스타일과 성능면에서 기존 제품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유럽수출안전규격인 CE검사를 유일하게 턴키(완성품 인도방식)로 검사받았습니다. 수출 후 성능과 제품 안정성, 경제성에서 더욱 인정받고 있으며 추가계약이 성사돼 선적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압출성형기 생산기반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삼광기계는 압출기 전기종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시트기 및 블로운 필름기를 주력으로 한 다층 압출성형기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삼광기계의 사장은 “범용 압출성형기보다 특수 다목적 기계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 이상의 개발 성공률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기계는 계속 보완하여 최정상급의 메카니즘을 구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술개발을 통해 출시한 제품은 수입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이 세계의 기술로 자리잡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삼광기계는 다이스 회전방식의 다층 복합 블로운 필름기를 비롯하여 호이스트를 장착하여 에어 샤프트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오토 갭 서페이스 와인더, 80억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통기성필름 성형기를 개발 한발 앞선 판매율을 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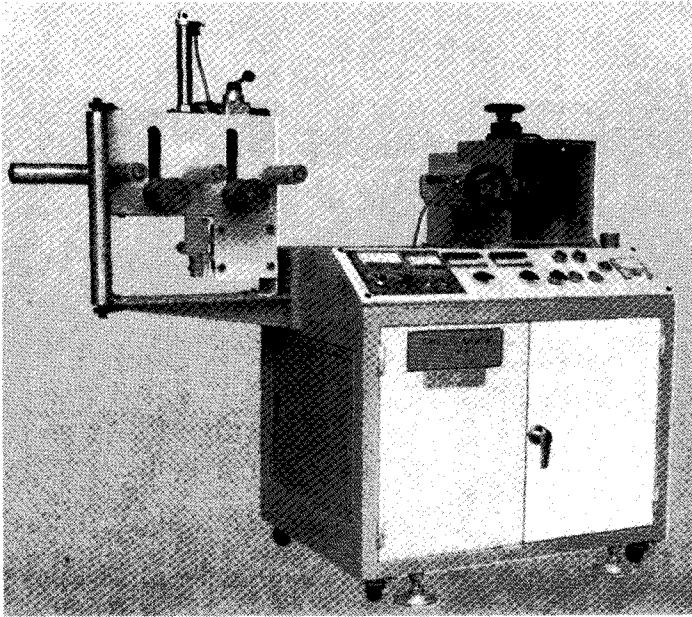
하고 있다. 통기성필름 성형기는 현재 수입의률이 높은 품목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를 출원했다.

다이스 회전방식의 다층 복합 블로운 필름기는 각 층의 필름 색깔을 원하는 대로 생산할 수 있으며 물성이 다른 수지를 별도의 라미네이팅 공정 없이 합치하여 동시 생산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수 링타입의 에어링 및 조리개, 자동폭 조절장치를 장착하여 최대 토출량 및 편차없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컬러 및 기능성 마스터배치, 레진 등을 정밀 정량 혼합하는 피딩시스템은 필름의 품질은 물론 신장률 인장강도 등이 월등히 뛰어난 제품 생산에 최적의 성능을 겸비하고 있다. 다층 복합 블로운 필름 성형기는 외화표시 원화대출 대상기종이다.

오토 더블 서페이스 와인더는 밀어서 감는 기능, 윈터치 스위치로 보빈축을 같이 회전시키는 기능, 스크래치 및 에어포켓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 등 3가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 기능은 성형제품 용도에 따라 작업자가 편리하고 쉽게 전환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갭 와인더의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폐필름 자동재생장치는 생산 중에 트리밍되어 버려지는 필름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고 톱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수지물성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공 후 압출성형기의 호퍼통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원료의 낭비를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99년 5월 1일 의장등록을 획득했으며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 중이다.

한편 삼광기계는 양방향 연신 OPP기계를 개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본격 생산체제를



◀로스필름(미미)자동재생장치

갖췄고 이 제품의 생산 폭은 2m이다. 앞으로 PE 필름도 양방향 연신이 가능한 기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광의 기술로 개발하여 기계 선진국 이탈리아에 수출한 것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수출하기 위해 독일 기관에서 직접 CE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입처인 이탈리아 회사 담당자가 공장을 방문,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라고 삼광기계는 밝혔다.

유럽시장에서의 인증을 계기로 삼광기계는 동남아시아 시장보다 선진 유럽쪽에 수출확대를 꾀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을 꾸준히 추구,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투자를 집중시킬 계획이다.

삼광기계 사장은 “성공 인생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예를 존중하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중점을 두고 기억 속에 남는 경영인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밝힌 뒤 신용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광기계의 사장은 소수정에 요원으로 가족주의 신화를 창조하는 한편 높은 기술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는 압출성형기 전문메이커로 육성, 외산기계를 능가하는 우수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거듭 말했다.

또한 “대만의 경우 전시회 참가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정부의 지원이 다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기업이라도 담보없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시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했다.

신용제일의 정신으로 한 번 맺은 인연을 영구화하는 동시에 원천 기술의 제품으로 고객의 기업발전에 기여하는 삼광기계가 세계시장에서 우뚝설 날도 멀지 않았다. ☐